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박형규	학번	
이메일	lifeib00@gmail.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Rutgers University / MCRS	(국가) USA
기간	2021. 1. 8 ~ 2022. 1. 2	[귀국일: 2022년 1월 2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22년 2월 15일

신청인 : 박형규 (인)

기후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4계절의 형태를 보이고 있고, 동부 해안가와 근접해 있어 대체적으로 온화한 기온의 특성이 있다. 2021년 1월 처음 도착했을 때는 미국 동부 지역에 60년만에 내리는 많은 눈으로 며칠간 외출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다. 한국에 비해 봄이 조금 늦게 시작하는 듯 하며 3월 중순 부터는 Daylight Saving Time(DST)가 시작되어 한 시간씩 빨라지게 되니 이점 미리 알아 두는 게 좋을 듯 하다. 그리고 11월에 다시 DST가 해제 되게 된다. DST 시행여부에 따라 한국과의 시차도 갭이 달라지게 된다.

Rutgers 대학교는 뉴욕시와 자동차로 약 1시간 정도의 거리에 뉴저지주 Piscataway에 있다. 학교 및 숙소가 New York city의 Manhattan과 가까워 세계적 도시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숙소는 New Brunswick 캠퍼스에 있는 Marvin 아파트로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1층부터 3층까지 높이의 저층형 아파트다. 1년 생활하기에는 불편이 없다. 물론 가족이 아닌 단신으로 머무를 수 있는 dormitory형 숙소도 있다. 뉴저지의 코리아 타운이 가까워 병원이나 한국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점이 있어 생활에 편리함이 있다. 숙소에서 15분 거리에 큰 한인마트도 있어 생필품 수급에 문제가 없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국 시 꼭 필요한 물품만 준비하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조달해도 충분하니 짐을 많이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자녀를 둔 경우 공립 또는 사립 중에서 학교를 선택하여 보내게 되는데, 공립의 경우 학비가 무료이나 사립은 일정부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공립은 숙소 앞으로 스쿨버스를 제공하는 반면 사립은 부모가 직접 등하교를 책임져야 한다. 정규 학교 수업을 따라가야 함으로, 미리 한국에서 자녀의 영어능력을 해당 학년 수준의 영어 능력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영어유치원 등 꾸준히 영어에 노출된 학생의 경우에는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없고 영어 학습 체득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KDI에서 영어식 수업에 익숙해져 수업을 따라 가는 데는 큰 문제 없었다. 사전에 공지된 Reading material을 읽고 토론식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개인별 주제를 선정해서 research paper도 작성해야 하는데, 중간에 한 두번 정도 PPT 발표가 있다. 다시말해 KDI식 수업을 소화 할 수 있는 경우 수업을 따라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Rutgers 대학 역시 여러 국가에서 온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어 각 국가별 사례를 발표하는 경우가 많다. KDI학생들이 한국의 사례를 발표하고 research paper를 작성하는 것에 교수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가끔 미국이 겪었던 문제를 한국이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도 지적해 주었고, 미국에서는 진행이 불가능한 이슈를 한국에서는 공공정책으로 풀어나가는 사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발표나 research paper를 작성할 경우 한국에서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사례 소개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수강해야 할 과목은 그 동안 여러 해 KDI학생이 수업을 들어와서 KDI 학생들이 선택해왔던 과목 위주로 선택한다면 무리 없다. KDI & Bloustein program은 공공정책 전문 대학원이다. Edward J. Bloustein School 이외의 대학원 수업도 수강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험상 다른 대학원 수업을 수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수업의 깊이와 주제가 KDI & Bloustein program하고는 다른면이 많았다.

기숙사는 1년 가족이 생활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외부로 나가서 좀 더 좋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겠으나, 비용이 두배로 필요하다는 걸 고려하면 러커스 대학에서 제공하는 기숙사가 실용적이라고 생각이 든다. 음식은 학교 식당을 활용할 수도 있고, 숙소에서 한국 음식을 요리해서 먹을 수 있다. Edison시에 큰 한국마트가 있으니, 한국음식에 필요한 재료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많은 음식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 미국식 음식도 요리해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러커스의 가장 큰 장점은 뉴욕이 가깝다는 장점이다. 시간이 되는 주말마다 뉴욕에 가서 일상을 즐긴다면 매주 주말이 바쁠 것이다. 따라서 미국 뉴욕은 큰 관광 포인트를 정해서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계획 없이 맨하튼 나들이를 자주 가는 것을 추천한다. 일요일에는 거리 주차가 무료이므로 일찍 가서 주차하고 걸어 다니면서 뉴욕커의 생활을 즐겨보는 것이 러커스 학생의 가장 큰 장점일 것이다.

우리가 보통 1월에 러커스 숙소를 입소하게 되는데, 겨울철에는 박물관 등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즉 겨울철에는 미술관, 박물관 등 일정을 모두 끝내고 봄이 시작되면 야외 활동이 필요한 여행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연휴가 끼어 있을 경우 보스턴, 나이아가라 폭포 등 장거리 여행을 틈틈히 끝내는 것이 좋다.

방학이 되면 서부를 여행하게 된다. 자동차가 믿음직한 상태라면 횡단을 추천한다. 동부에서 라스베가스 까지 가는 데는 운전만해서 5일정도 잡아야 한다. 여행을 하면서 가면 10일도 부족할지 모른다. 하지만 주요 관광 포인트가 서부에 있으므로, 일단 드라이브 여행이라 생각하고 횡단을 하고 서부에서 곳곳을 다닐 계획을 잡는 것이 좋다.

미국은 자동차 여행이다. 한국에 비해 저렴한 유류비와 잘 뚫린 고속도로를 이동하면서 대자연과 우리와 다른 문화적 풍경을 여행하는 것이 미국의 장점이다. 서부로의 긴 여행, 남부로의 색다른 문화적 체험 여행은 내게 큰 추억을 주었다. 최대한 계획적으로 최대한 갈 수 있는 먼 곳까지 가보기를 추천한다. 멀리 그리고 힘든 여행속에서 더 많은 추억과 강한 기억을 만들었던 거 같다.

이번 GMP 과정을 통해 그 동안 논문 등의 자료를 통해 선진국에서 고민하고 있던 문제에 대해 연구해왔다. 각종 공공정책을 준비할 때 자료를 통해 간접 경험했던 미국의 공공정책에 대해 직접 강의와 토론 등을 통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리고 미국의 공공정책을 어떻게 찾을 수 있고 어떻게 활용 할 수 있는지 알게 되어 기쁜 소득이었다. 또한 모든 가족들이 함께 선진국의 시스템을 함께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 KDI GMP 과정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최동욱	학번	
이메일	ataig01@gmail.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Rutgers / MCRS	(국가) 미국
기 간	2021.1.8~2021.12.31	[귀국일: 2022년 1월 1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 기후는 전반적으로 한국과 비슷하지만 한국보다 봄이 늦게 찾아 옵니다. 가족 기숙사는 학교 Bush 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어 치안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산책하는 장소와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놀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건물들이 노후화 되어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월세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5인 가족이 살기에는 조금 좁지만 4인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충분한 공간입니다. 기숙사(Marvin apt) 근처에 도보로 접근 할 수 있는 상가가 없음. 미국의 대부분 지역이 그러하듯 차 없이는 생필품을 구매하기 힘듭니다. 초반에 적응이 잘 되지 않았지만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수도물은 석회질이 많아서 식용으로 사용하기에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항상 생수를 구매하여 사용하였습니다.
- 가족 기숙사에 정착하면, 공립학교 Knollwood는 3th grade까지, MLK는 5th 까지 , Conackmack은 6th 부터 다니게 됩니다. 저학년(MLK)까지는 영어를 잘 못해도 선생님도 관리를 잘해주는 것 같으나 중학교(Conackmack) 부터는 수업 내용도 어렵고 친구를 사귀는 것을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나 애들의 영어 실력은 1년밖에 생활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 볼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 MCRS 프로그램은 Urban planning에 관한 수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미국의 역사와 도시에 발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수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교수님들 모두 열정적으로 강의하여 주시며, KDI 학생들이 많이 거쳐 갔던 만큼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십니다. 전반적으로 국가의 인프라를 계획하는 부서에 있는 분이라면 도시, 교통 계획과 환경에 대해 지식과 견해를 많이 넓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 MCRS는 총 8과목 24학점을 이수하면 됩니다. 전공 필수가 3과목이 있고 집중 과목 2과목, 선택과목이 3과목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업 전 리딩 자료를 읽어보고 수업에 참여합니다. 한 과목당 ppt 발표를 해야 하며 최종 paper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업 구성은 한국처럼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들의 참여를 많이 유도합니다. 매일 ppt 발표가 있으며 거기에 대한 질문과 토론을 하게 됩니다. 상반기는 Zoom 수업으로 인해 토론이 다소 매끄럽지 못했으나 하반기부터 offline 수업에는 조를 나눠 토론을 하였습니다. 토론 수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오기전 와서도 영어 공부를 계속 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 History and theory of planning(Newman): 미국의 도시계획 역사에 대해 배웁니다. 교수님이 이론에 대한 수업을 잠시 진행하고 학생이 발표를 합니다. 발표 후 조별 토론 수업을 진행하고 조별로 토론한 결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 Urban Economic and spatial Methods(Hoosang): 학생들이 발표하고 교수님이 이론에 대한 수업을 합니다. 리딩 자료는 있는나 강의 노트는 없습니다. 시험은 중간, 기말 2번 있으나 스터디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Planning Methods(Eric): Smart 교수의 수업이었으나 21년 교수님의 개인 사정상 Eric이 수업을 하였습니다. 간간히 Smart 교수님이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이 과목은 훨씬 더 잘 가르치는 듯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 사전에 설문조사, 인구, 소득수준 등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총 4개의 프로젝트가 있고 주로 엑셀을 이용하여 레포트를 작성합니다.
- Seminar Public Policy(Cander): KDI 학생들을 위해 개설해준 과목입니다. 교수님이 재밌고 쉽게 가르쳐 주긴 하지만 다소 철학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레포트, 발표, 시험이 있으며, KDI 학생들만 수강하기 때문에 다른 과목보다 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 Regional Development(Hoosang): Urban Economic and spatial Methods와 수업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학생수에 따라 PPT 발표를 학기중 2번 할 수 있습니다.
- Bridging Public Health and Urban Planning(Karen): 중간중간 mini assignment와 최종 보고서 및 발표가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게스트를 초청하여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생소한 인프라의 계획과 운영이 국민들의 건강, 보건과 관련한 이론을 배울 수 있습니다.
- Environmental planning and Management(Greenburg): 아쉽게도 이 교수님은 21년 가을 학기를 마지막으로 퇴임하셨습니다.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가 있으며, 수업을 2시간 정도 진행하고 1시간은 토론하고 토론결과를 발표함

니다.

- Infrastructure Management System(Wang): MCRS와 연계된 추천과목으로 토목공학 대학원 수업입니다. 개인적으로 토목공학전공자고 관련업무를 하고 있어서 듣게 되었습니다. 숙제 5개, 시험, 발표, 최종 레포트 제출을 하였습니다. 중국인 교수님으로 중국인 학생들이 많이 듣는 수업이었습니다.

4.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 Marvin 아파트는 1층은 단층, 2층은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장실 1, 방 2개, 거실, 주방, 작은 창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기 및 수도 사용 포함하여 월 1,500달러 지불해야 합니다. 건물이 준공된지 약 50년되어 전체적으로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히터나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도 크고 주변 이웃들의 소음도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고, 치안이 괜찮으므로 1년 생활하기에는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아이들이 놀 시설들은 부족하지만 조금만 나가면 공원, 운동장 등에서 여가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5.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 학교 동호회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나이차가 너무 나서 그만 두었습니다.

6.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전반적으로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계획에 대한 미국의 역사적 배경을 배울 수 있었고, 새로운 시각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7.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 비자는 저희처럼 기관에서 파견하는 경우는 재정상황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발급됩니다. 출입국시에도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뭐 배우냐 라는 질문 하나만 받고 끝났습니다.
- 해외 생활 중 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운전과 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저지와 뉴욕 주는 No turn on red 싸인만 없으면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시는 무조건 녹색등에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회전 금지만 없으면 좌회전이 모두 허용됩니다. 그리고 스쿨버스가 적색등을 점멸하면 반대쪽 차로까지 정지하여야 하며, 운전석 및 보조석에는 술을 실으면 안됩니다.
- 여행 중 차량도난 사고 및 범죄가 빈번합니다. 차량 내에 귀중품이 보이면 도난을 시도하며,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무료주차, 심지어 유료주차장에도 도난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안전한 여행을 위하여 숙소와 주차장소를 정할 때 해당지역의 범죄율 등을 확인하고 선택하였습니다.

8.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 정착기간이 1년밖에 안되고 대부분 가족과 함께 미국에 오게 됩니다. 미국 준비하는 데 3개월, 와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차량 등록, 면허 따고, 여러 가지 행정 처리 하다 보면 정착하는데 2~3개월이 금방 지나갑니다. 특히 21년은 코로나로 인해 정부 행정기관들이 비대면 및 재택 근무를 하는 바

람에 그렇지 않아도 늦은 미국 행정이 더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적으로 이제 좀 적응했네 하면 귀국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학업도 학업이지만 미국의 다양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느끼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년 계획 잘하셔서 즐거운 미국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학처장 귀하

2021년 12월 29일

신 청 인 : 최동욱





KDI School, 263 Namsejongro, Sejongsi, KOREA

TEL: 82-44-550-1080 FAX: 82-44-550-1232

HOMEPAGE: <http://www.kdischool.ac.kr>

1. 초기 생활 정착 및 주거 환경

○ 자녀학교

- 초등학교 1~3학년은 Knollwood elementary school, 4~5학년은 Martin Luther King elementary school에 배정받게 됨
- KDI 학생들의 자녀가 매년 오고 있고, 인도, 파키스탄 등 다양한 나라의 인종의 유학생 등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라서 한국 학생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는 높음. 스쿨버스가 학생들이 배정받는 Marvin apartment 앞으로 오기 때문에 등,하교도 편리하고, 안전도도 높음
- 만 5세 미만인 경우 Knollwood에서 운영하는 공립유치원(Pre-school)에 다닐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설 어린이집(Private Kindergarten)에 보내거나 집에서 돌보아야 함

○ 생활관련 사항

- 식료품, 물, 등의 구매는 코스트코와 한국마트(H마트)가 15~20분 거리에 자리하고 있어, 이용에 불편은 없음. 물, 육류, 생선 및 공산품 등은 코스트코, 월마트, Trader's Joe 등에서 구입하고, 한국 음식재료는 H마트에서 구매했음
- Marvin apartment 주변에 Sony weblin이라고 하는 수영장+휘트니스 센터가 있어 재학생은 무료, 가족은 200불/학기 수준으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며, 텃거스 골프장도 매우 가까워 재학생은 15불/18홀 수준으로 이용 가능함
- 또한, 미식 축구장(관람료 있음), 축구장(관람료 없음) 등이 인접해 있어, 시즌별로 대학 스포츠 관람이 매우 편리함

○ 기숙사 생활

- KDI 학생은 대부분 Marvin apartment에 배정받음. Marvin은 가족동반 대학원생들을 위한 전용 기숙사로 주변 환경이 매우 안전하고, 조용하며 주변에 노루, 토끼, 여우 등 야생동물이 수시로 나타날 정도로 쾌적한 환경에 위치하고 있음
- 건물이 1976년에 처음 지어진 탓에 조금 오래되어 창틀이나 화장실 등이 낡은 것은 사실이나, 학교측에서 유지관리를 비교적 잘 해주고, 그동안 학생들이 살아오면서 집을 정비해왔기 때문에 1년 생활하는 데에는 큰 불편함이 없었음. 또한, 2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침실과 거실. 부엌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장점임.
- 기숙사는 1,400불/월 수준으로 전기, 수도 등 유틸리티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입주 주민의 인종 구성은 한국인, 중동 및 인도, 파키스탄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2. 학교 소개 및 교육의 질

o Rutgers University

- 뉴저지주의 대표 주립대학교로 1766년에 세워졌으며, 하버드 대학교 등과 함께 영국 식민지 시대에 설립된 9개 학교인 Colonial college에 해당되는 유서 깊은 학교임
- 미국 동부의 아이비 리그와 같은 명문 사립대들이 많고 주립대인 탓에 한국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미국의 여러 대학 순위에서는 건축환경 공학, 약학 등을 비롯해 여러 전공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미국에서는 명문 주립 대학교임

o Edward J. Bloustein School of Planning and Public Policy

- Bloustein School의 MCRS코스는 2020년 기준 미국 전체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훌륭한 프로그램임. Bloustein School 대학원 건물은 뉴브런즈윅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술대학과 건물을 공유하고 있음
- Bloustein School MCRS코스(도시계획과)는 공공정책 및 계획 대학원에 포함되며, 도시계획, 교통, 환경, 보건 등 관련 개발정책과 관련한 광범위하게 전반적인 분야를 다루고 있음
- KDI와의 오래된 협력체제로 인해 학교 행정 실무자들이 학교에서 온 학생들의 상황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으며, 미국 입국에서부터 초기생활 정착과정, 수강신청, 자녀 학교 등록 등에 대한 지원에 매우 적극적임
- 그러나, 2021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미국 행정기관들의 대면 업무 중단으로 인해, 학교측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초기 정착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음

o 수강신청

- MCRS 과정은 1년 동안 총 24학(8과목)과 영어수업(봄.가을 각각 1과목씩)을 이수해야 함. 이 과목들과 함께 KDI에서 transfer되는 6학점(2과목)을 포함하여 30학점을 이수함으로써 졸업 요건이 충족됨
- 1학기에는 학교측에서 필수과목을 위주로 대신 수강신청을 진행해주나, 개인의 판단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
- 1년 동안 졸업을 위한 core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함. MCRS의 core는 Planning Method, Method1, History and theory of planning, Urban economy and spatial patterns 4과목임. 이중 Method1은 KDI의 QM으로 대체 가능함

○ 수업소개 및 내용

과목명	교수명	주요내용
Planning method (1학기)	Eric Seymour	도시계획에 필수적인 정량적, 정성적 모델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실습 - 4개의 Problem set으로 평가(관찰, 인구예측, 사업.경제 분석, 정책평가) - 각 set마다 10p 이상 리포트 및 엑셀 분석 필요
History and theory of planning (1학기)	Kathe Newman	미국의 도시개발 역사와 그 과정에서의 도시계획 이론의 변화 - 발표 및 Research paper(10p) 각 1개 - Reflection paper(3p) 3개 - 매시간 Discussion 참여
KDI Policy seminar (1학기)	Alan Cander	경제학적인 정책분석을 위한 기초지식 - 퀴즈 1회, 정책메모 3회, 발표 1회
Urban economics and spatial pattern (1학기)	Hooshang Amirahmadi	도시경제학 이론 및 도시공간구조 사례 스터디 - 시험 2회, 발표 2회
Regional development (2학기)	Hooshang Amirahmadi	지역개발 이론 및 사례 스터디 - 시험 2회, 발표 2회
Environmental Planning and Management (2학기)	Michael Greenberg	도시계획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환경 이슈 및 정책 - Research paper 2회
Bridging Public Health And Urban Planning (2학기)	Karen Lowrie	도시계획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건강 이슈 및 정책 - Research paper(20p) 및 발표 1회 - Health Impact Assessment 1회
Introduction to the UN (2학기, 비동기)	Dilafruz Nazarova	UN의 거버넌스, 역할 및 개선방안 - 매주 Blog, Discussion 게재 - Research paper(20p) 및 발표 1회

4. 전반적인 평가 및 하고 싶은 말

- Rutgers university가 위치한 뉴저지는 한국과 비슷한 기후를 보임. 1~3월 사이는 눈이 많이 오고, 봄이 다소 늦은 편임. 가을에는 서늘하여 여행하고, 생활하기 좋음 미국 서부에 비해 기후에 있어서는 당연히 약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4계절을 즐길 수 있는 곳임
- 뉴저지는 뉴욕이 1시간 이내로 가깝고, 보스턴, 필라델피아 등 동부의 유서 깊은 도시들을 여행하기에 최적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음. 또한, 'Garden City'라는 애칭답게 충분한 녹지, 훌륭한 공원을 가진 매력적인 곳이며, 상기한 바와 같이 Rutgers University는 미국내 대학순위에서 훌륭한 평가를 받는 꽤 괜찮은 학교임
- 또한, 학교의 행정 실무자가 KDI 학생에게 상대적으로 친숙하고 지원을 많이 해주려 노력하는 편임
- 전반적으로 Rutgers University에서의 1년 생활에 매우 만족했으며, 후배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은 코스임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정명근	학번	
이메일	mkjeong20@gmail.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Rutgers, MPAP	(국가) 미국
기간	2021.1~2021.12	[귀국일: 2022년 1월]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처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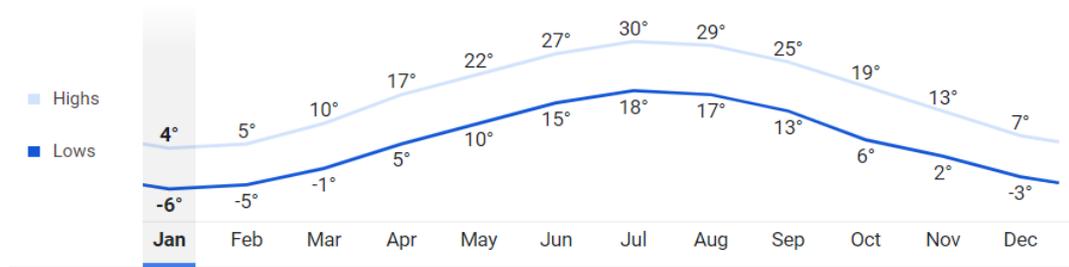
2022년 1월 _____ 일
신청인: 정명근 _____ (인)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1) 기후 및 지리적 위치

- Rutgers 대학이 위치한 뉴저지 New Brunswick은 대한민국 서울과 연중날씨 및 기후적 특성이 유사합니다.

Temperatures (°C)



(Source: NOAA)

2) 생활관련 사항

- 뉴저지는 미국 동북부에 위치하여 뉴욕과 인접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나이아가라 폭포와 캐나다(토론토, 몬트리올, 퀘벡), 보스턴, 남쪽으로는 워싱턴 D.C, 플로리다(올랜드 및 마이애미) 및 멕시코 칸쿤 등을 여행하기에 편리합니다.

- 뉴욕 맨하탄은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약40분의 당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당일로 박물관, 공연장, 경기장,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하버드 및 MIT, 예일대학교 등이 위치한 보스턴과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도 차량으로 4~5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주말 및 공휴일을 이용하여 방문할 수 있습니다.

- 대학교가 위치한 중부 뉴저지는 LA나 뉴욕에 비해 한인상권이 발달한 곳은 아니지만, 인근 한인마트 두 곳을 중심으로 한인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3) 자녀학교

- 자녀학교 배정은 기숙사에 거주하는지, 외부숙소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본인은 기숙사가 아닌 럿거스 대학 인근 East Brunswick이라는 지역에 거주하였고, 자녀들도 해당지역의 초등과 중등학교를 다녔습니다.

- 학교등록 절차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교육청에 제출하면, 거주지 증빙(렌트 계약서, 유틸리티 등)을 확인하여 학교를 배정해 줍니다. East Brunswick은 스쿨버스가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등하교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 정규 수업 외에도 ESL 수업이 진행되며, 다양한 예체능 수업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해당지역 주민에게 개방되어 있는 Public Library를 매주 방문하여 각종 도서와 미디어 자료 등을 무료로 이용했습니다.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 1) 럿거스의 강의는 KDI에서 1년차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은 큰 어려움 없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언어적인 어려움이 다소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KDI수강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기 때문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2) 전공별 필수과목 외에는 다양한 선택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일부 전공 필수과목도 KDI 선수강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점은 장점입니다.
- 3) 과목별 수강생은 15명, 전공과목은 30명 내외이며, 2021년의 경우 팬더믹의 영향으로 대부분 온라인 수업이었기 때문에 강의식 수업을 기본으로 발표와 토론, 과제제출 등으로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 4) 일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강의내용 및 교육의 질은 만족스러웠으며, 공공정책 관련 다양한 강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 1) 봄학기는 1월 중순~5월 중순, 가을학기는 9월 초~12월 초에 진행되기 때문에, 여름학기를 수강하지 않을 경우 5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기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2) 1년간 수강할 과목은 총 8개로, 봄/가을에 각 4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와 봄학기 4과목 외 여름학기 1~2과목, 가을학기 2~3과목을 수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3) 본인은 MPAP전공으로 봄학기에 4과목(전공필수 2과목, 선택2과목), 가을학기 4과목(전공필수 1과목, 선택3과목)을 수강했습니다. 전공필수 과목 중 Basic Quantitative Methods는 KDI에서 수강했기 때문에 면제를 받았습니다.
- 4) 봄/가을학기 수업은 과목당 12주(주당 1회, 3시간)로 진행되며, 여름학기는 6주(주당 2회, 3시간)로 진행됩니다.
- 5) 과목별 평가사항은 중간/기말고사, 발표, 보고서 등을 요구하는데,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통상 15~20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합니다.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 1) 본인은 대학교 기숙사가 아닌 외부 숙소를 얻어 생활했습니다. 처음 Rutgers를 결정하고 나서 학교 기숙사와 외부 숙소를 비교하였습니다. KDI 홈페이지에 있는 Rutgers 귀국 보고서를 읽어보니 기숙사는 비용이 저렴(렌트비 월 1,400불에 각종 유틸리티 포함)한 반면, 숙소 상태와 아이들 학군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2) 대안으로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아이들은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도 고려해보았으나 두명의 아이들을 사립학교에 보내는 비용이면, 숙소상태와 학군이 만족스러운 외부숙소를 얻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3) 이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교와의 접근성, 숙소의 상태와 아이들 학군을 고려하여 East Brunswick에 숙소를 얻었습니다.
- 4) 처음에는 미국식 싱글하우스나 타운하우스에 거주하고 싶었으나, 미국 내 거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용도나 사회보장번호(소셜넘버) 등이 없어 개인소유의 주택을 렌트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결국 부동산회사가 소유한 아파트를 얻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만족했습니다.

4) 아파트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이유는 첫째, 치안/보안이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파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이 거주한 아파트는 차량 및 입주인 모두 보안키가 있어야만 실내 주차장과 건물내부 진입이 가능했습니다. 싱글하우스의 경우 앞뒤 출입문 보안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 여름방학 기간동안 장기간 집을 비워둬야 하는 점이 우려되는 반면, 아파트는 이러한 부분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관리가 편리합니다. 한국에 비해 오래된 주택이 많은 미국이기 때문에 싱글/타운하우스의 경우 집수리 및 유지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실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즉시 처리해주기 때문에 편리했으며, 폭설 및 폭우 시 집 주변 관리, 쓰레기 처리 등도 아파트 거주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다만 기숙사가 아닌 외부숙소, 그리고 외부숙소 중에서도 아파트를 얻을 경우 고려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첫째, 기숙사에는 침대, 식탁, 소파 등의 기본 가구들이 비치되어 있는 반면, 외부숙소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미국 도착 후 준비해야 하나, 인근 IKEA나 코스트코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가스/수도 및 인터넷 등 유틸리티 신청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 둘째, 외부숙소를 얻을 경우 미국 한인 중개사(realtor)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물론 요즘엔 인터넷에서도 미국 전역의 주택임대에 관한 매물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한국에서 세부사항을 알아보거나 방문예약 연락 등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요구하는 각종 서류준비 및 제출, 영어로 작성된 렌트계약서를 확인하는 것 등을 위해 중개사를 통해 숙소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입국 1~2달전부터 미국 중개사와 함께 관심지역 선정 후 얻고자 하는 주택에 대한 방문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경우 한국에서 미리 계약을 하면, 외부숙소를 돌아보며 호텔에 거주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사전에 미국 주소가 확정되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배정,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각종 서류준비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셋째, 목조주택이 대부분인 미국 주택(아파트 포함)의 특성 상 아파트는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변 가구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넷째, 중개사 비용은 개인소유의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부담(약 1~1.5개월치 렌트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아파트는 아파트 소유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아파트도 중개사 비용은 아파트 회사에서 지급)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 Rutgers 생활 중 기억에 남은 일은 학업시간 외에 미국 내 주요 여행지를 경험한 것입니다. 미국 입국 초기에는 자녀학교 등록, 운전면허 취득, 수강신청 및 학교적응 등으로 1~2달 바쁘게 지내지만 초기정착이 완료된 이후에는 미국 내 다양한 관광지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차량으로 서부지역까지 대륙횡단을 하기도 하고, 이 외에도 자녀들 봄/가을 방학(약 1주일)과 각종 연휴기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이에는 있는 뉴욕 맨하탄에서는 수많은 박물관, 전망대 등 관광명소와 뮤지컬을 언제든지 즐길 수 있으며, 뉴저지 인근에도 다양한 명소가 많습니다.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팬더믹과 외부숙소 이용 때문에 보다 다양한 학교생활을 경험하지는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해외 대학원 수강과 여가시간을 활용한 여행으로 GMP 2년차는 본인은 물론 가족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 Rutgers 입학지원, 주한 미국대사관 비자발급, 미국 입국 등은 모두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특히 럿거스에서는 KDI학생들을 위해 초기 정착(입국 시 이동차량 제공, 은행 및 핸드폰 개설, 운전면허 취득 정보 등)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 해외 현지생활에 대해서는 GMP 귀국보고서를 기본으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또한 KDI에서 개설한 GMP카페를 이용하거나, 이전에 생활하셨던 분들에게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이용해서 궁금한 점을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Covid-19와 관련해서는 팬더믹 초기부터 현재까지 대도시 지역인 뉴욕/뉴저지에 확진자 숫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뉴욕 맨하탄 등 대도시의 유명 관광지를 가는 것이 아니라면,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 GMP 2년차 학교선택으로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어느 곳을 결정하시더라도 그 이상의 좋은 경험이 될 것이며, Rutgers 역시 좋은 선택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Rutgers를 선택하신다면 기숙사에 거주하는 것과 함께, 외부숙소를 이용하는 것도 비교해 볼 사항입니다. 조금 더 준비하여 알아보면 다양한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KDI 1년차 과정처럼 GMP 2년차 과정도 금방 지나갑니다. 미리미리 계획 세우셔서 학업이나 언어적으로, 그리고 여가생활도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